

## 『제1회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인증서, 현판 수여 및 지원』

**한** 국전자산업진흥회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의거 정부시책인 부품·소재 수출리딩컴퍼니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삼성SDI 등 8개사가 선정되었다.

동 사업은 당초 정부에서는 수출모범기업 2개사, 수출지원기업 2개사 등 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본회는 전자산업이 국내 수출액의 35% 이상을 점하고 있는 점을 강조, 대정부 건의를 통해 8개사

를 추천한 결과 타 업종보다도 가장 많은 8개사가 『제1회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로 선정되었다.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사업은 수출모범기업과 지원기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수출모범기업은 수출실적이 탁월하거나 훌륭한 성공 사례를 가진 기업이고, 수출지원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가 충분히 예상되는 잠재력이



앞줄 왼쪽부터 일진소재산업(주) 김윤근 대표이사, 광전자(주) 이택렬 대표이사, 자화전자(주) 김상면 대표이사, (주)아이엠알아이 유완영 회장, 삼성SDI(주) 서동묵 상무, 뒷줄 왼쪽부터 전자산업진흥회 이희준 이사, (주)아모텍 김병규 대표이사, (주)한국안테나 박세화 대표이사

높은 기업으로 선정, 시행중에 있다.

본회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경과를 보면

- '01. 7. 26 :  
부품·소재수출 Leading Company 계획수립 회의 참석 (산자부, 자본재총괄과)
- '01. 8. 29 :  
부품·소재수출 Leading Company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본회 전회원사)
- '01. 9. 17 :  
부품·소재수출 Leading Company 대상기업 8개사 추천 (산자부, 자본재총괄과)
- '01. 9. 26 :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실무자 회의 참석 (산자부, 자본재총괄과)
- '01. 10. 8 ~ 10 :  
부품·소재 Leading Company 대상기업 현장 실사 (산자부, 진흥회)
- '01. 11. 8 :  
부품·소재 Leading Company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단체 전문위원) 개최 시 관련자료 제출
- '01. 11. 1 ~ 20 :  
수출모범사례 발굴 및 회사 현황 조사 및 자료제출
- '01. 11. 28 :  
제1회 부품·소재 Leading Company 발대식 행사 지원

전자분야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선정 결과를 보면, 전체업종 40개 사중 전자산업 분야가

8개사로서 가장 많은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업종별 선정현황을 보면 전자 8개사, 기계 7개사, 전기 4개사, 자동차 4개사, 정밀화학 3개사, 섬유산업 2개사, 조선기자재 3개사, 철도차량 2개사, 통합연구단 3개사, 투자기관협의회 4개사 등 40개사이다.

전자분야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8개사 현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선정 기업	대표자	주요생산품목	구분
삼성SDI(주)	김순택	CDT, CPT	수출모범기업
일진소재산업(주)	김윤근	PCB용 전해동박	"
티비케이전자	김내순	자동차용 튜너	수출지원기업
(주)한국안테나	박세화	GPS	"
(주)아모텍	김병규	아모포스 코어	"
(주)아이엠알아이	유완영	LCD 모니터	"
광전자(주)	이택렬	트랜지스터	"
자화전자(주)	김상면	PTC 서미스터	"

본회는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로 선정된 8개사는 정부 및 관련기관을 통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며,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산자부장관 인증서, 현판수여를 비롯하여 정부정책자금 및 기술개발사업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투자대상 기업으로 추천, KOTRA 수출지원(해외전시회 우선 참가등), 통합연구단 기술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원, 국내외언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원, 우수부품·소재기술상, 업종별 포상 및 수출포장 등 각종 수출관련 시상식의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등이다.

## 부품·소재 수출 Leading Company 선정업체(Ⅰ)

### 삼성SDI(주)

- 대표자 : 김순택
- 주소 : (443-7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동 575
- 천안사업장 : (330-300) 충남 천안시 성성동 508
- 전화 : 031-210-7114, 02-727-3100
- 팩스 : 031-545-2805
- 홈페이지 : www.samsungsdi.co.kr
- e-mail : webmaster@samsungsdi.co.kr

#### ▶ 회사개요

- 설립년도 : 1970. 1. 20
- 종업원수 : 8,189명
- 매출액('00) : 4,161,800백만원
- 주요생산품목 : CDT, CPT, LCD, 이차전지 등
- 주요수출국 : 미국, 일본, 유럽 등

#### ▶ 회사소개

삼성SDI는 디지털방송과 인터넷 통신, 이동통신기기의 확산에 힘입어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30년간 디스플레이 전문기업으로 명성을 쌓아 왔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독일,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 세계 6개국 10개 생산거점에서 컬러 브라운관과 종합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고객과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세계 정상급의 브라운관 기술을 바탕으로 초슬림 완전평면 브라운관 i-tron, 디지털TV용 PDP, 이동정보 통신기기의 핵심 장비인 STN-LCD, 2차 전지, 미래형 디스플레이 유기EL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을 눈에 보이게 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핵심부품을 개발하여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세계적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이다.

#### ▶ 생산제품의 특징 및 기타 주요사항

- 2000년 CDT 및 CPT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원가 및 기술력에서 세계 정상)
- VFD, STN-LCD는 세계시장 점유율 2위
- PDP, 2차 전지, 유기EL 등은 향후 세계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것임
- 해외생산기지를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독일, 중국의 5개국으로 수출기반을 확대

## 일진소재산업(주)

- 대표 자 : 김윤근
- 주 소 : (570-998) 전북 익산시 팔봉동 827
- 전 화 : 063-835-3616
- 팩 스 : 063-835-3620
- 홈페이지 : www.iljin.co.kr
- e-mail : razzle@iljin.co.kr

### ▶ 회사개요

- 설립년도 : 1987. 8. 11
- 종업원수 : 356명
- 매출액('00) : 120,500백만원
- 주요생산품목 : PCB용 전해동박(Copper Foil) 알루미늄 Foil
- 주요 수출국 :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

### ▶ 회사소개

1967년 창업 이래 소재, 부품, 전기, 정보통신 등 폭넓은 산업분야의 제품을 생산해 온 일진은 벤처 정신을 추구하며 자체기술 개발과 기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33년이 지난 지금 10개 계열사를 설립한 일진은 88년에 주식회사 일진, 90년에는 일진전기공업(주)를 주식시장에 공개하였다.

동북강선에서 광케이블에 이르는 통신용케이블, 나선에서 초고압에 이르는 전력케이블, 알루미늄 소재로 한 전자재, 전자 산업의 첨단 기초 소재인 PCB용 전해동박, 절삭공구 소재인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전체 생산품목의 대부분을 자체 기술 개발에 의해 국산화시켰다. 특히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공동개발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업체인 GE(General Electric, 미국)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또한 일진은社内 R&D와 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국가 차원의 기초 공학 기틀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90년에는 서울대학교에 국내기업 최초로 신소재공동연구소(德明기념관)을 건립, 기증해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 생산제품의 특징 및 기타 주요사항

- 동박부문 세계3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자체 개발로 수입대체
- 생산량의 90%를 수출, 신제품 개발, 양산(RT동박, DT동박, UCF Pink동박, VLP동박, High Tg동박 등)에 따른 미국 및 유럽, 일본시장으로 확대
- 조치원 공장 준공으로 하이테크동박 생산확대
- 국내 시장 80% 점유